

Aksigen Hospital Care사, 의료용 섬유 'ARMA' 출시

인도의 Aksigen Hospital Care사는 효소를 기반으로 한 항염증 제품의 선도 기업으로 최근 의료용 섬유 'ARMA'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세계 첫 번째로 개발된 세탁이 가능한 영구적인 소독용 의료 섬유이며 병원내감염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섬유는 병원내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상당 기간 동안 병원성 박테리아가 서식하게 된다. 더구나 세탁을 하더라도 이러한 미생물이 죽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병원내감염이 전파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ARMA' 제품은 자체 Livinguard™ 기술로 가공되며, 가공된 섬유는 화학적 반응이 아닌 특유의 물리적 파괴 반응으로 병원내감염을 야기시키는 모든 주요한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어 병원내에서 감염이 급격하게 퍼지는 것을 막는다. 첨단기술로 제조된 'ARMA'는 피와 체액의 침투 및 오염을 막으며, 이러한 보호 성능은 병원내감염 확산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ARMA'는 무독성 및 재사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의사들과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류, 침대커버, 침대시트, 커튼, 담요 및 타올 등의 용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비용 효율이 높다.

Aksigen Hospital Care사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20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ARMA' 제품의 출시로 헬스케어 종사자들과 환자들에게 강화된 종합적인 감염 방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헬스케어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의료용 섬유 'ARMA'